



한국틴스타

2016년 3월
제45호

www.teenstar.or.kr



성(性)에 대한 두려움과 상처

박광훈 신부

대구가톨릭대학교 신학대학 / 제85차 워크숍 수료

인간의 몸은 혼인적이며, 인격의 결합을 지향하고 있다는 사실과 인간의 성은 관계에 봉사한다는 기본적인 사실에 입각하여 성에 대한 왜곡된 시선을 회복하고자 신학교 1학년들과 매년 틴스타를 함께 한지가 벌써 4년이라는 시간이 지났다. 신학생들과 이야기를 하다보면 가장 많이 느낄 수 있는 것이 바로 성(性)에 대한 두려움이다.

어떤 식으로든 솔직해지기보다는 피하려 하고, 결국 자신을 굳게 닫아걸고 그 누구도 안으로 들어오는 것을 허락하지 않는다. 그러다 보니 아름다워야 할 성(性)이 상처가 되어버리는 경우를 종종 보게 된다. 사람 사는 일에 어찌 상처에 대한 두려움이 없을 수 있겠는가. 모든 사람은 코드가 다르다. 서로 자라온 환

경과 사고가 달라 사람이 타인을 완벽하게 이해하기란 불가능한 일이다. 사소한 말 한마디에도 오해가 빚어지고 크든 작든 어떤 식으로든 사람은 그에 대해 상처를 입는다. 그 상처의 크기와 깊이라는 것도 저마다 달라서 허리가 부러진 사람이든 손가락이 부러진 사람이든 제 나름대로는 스스로 느낄 수 있는 최악의 고통을 겪고 있다고 생각한다. 그리고 그것은 나름대로 정당하며, 또 그렇게 타인에게도 이해되어야 한다. 그러나 바로 여기서 상처가 성(性)에 대한 오해를 불러일으키기도 하는데, 그 중 하나는 성(性)의 상대성이다. 대다수의 사람들은 각자가 가지고 있는 성(性)적인 상처의 경중을 비교하고 가릴 수 있다고 믿는다. 그러나 어찌되었건 상처란 지극히 주관적인 영역의 것

이어서 내가 더 크네, 네가 더 깊네, 하고 따질 수가 없는 성질의 것이다. 오로지 그것을 받아 들이는 사람의 영역에만 속한 일이다. 성(性)에 대한 또 다른 오해는 바로 성(性)으로 인한 상처를 피할 수 있다는 생각이다. 내가 남에게 상처를 주지 않으면, 내가 상처를 피하면 다 무리 없이 스리슬쩍 넘어갈 수 있을 것이라는 알팍한 이기심이 생긴다. 인간과 인간 사이에서 발생하는 가장 원초적인 것이 사유의 충돌로 인한 오해이며 그 결과로 상처가 생긴다. 성(性)에 대한 두려움에서 시작한 상처 역시 마찬가지라는 것이다. 어찌 피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가, 어찌 달아날 수 있다고 믿는가,

매스미디어의 홍수 속에서 허우적대며 살아온 학생들이 받은 많은 성(性)적인 두려움에 의한 상처는 결코 해로운 것이 아니다. 나는 우리 학생들이 이 사실에서부터 시작하길 바라며, 또한 함께 한다. 육체가 밥을 먹어야 살듯, 잠을 자야 살듯, 영혼은 상처를 입어야 성숙한다. 무수한 상처와 끊임없이 함께 살아야 성장한다.

성(性)에 대한 왜곡된 시선과 두려움 그리고 그로 인한 상처의 해결책은 결국 사람이 아닐까 싶다. 성(性)도 넓은 의미에서 사람일진데 어찌 순간적인 판단과 편견으로 사람을 다 알았다고 할 수 있으랴. 어찌 성(性)을 이해하기에 그리도 인식할 수 있단 말인가. 사람이란 그 어떤

대가를 치르더라도 포기할 수 없는 가장 소중한 존재이다. 내가 사람이기에 그렇다. 사람이 사람과 살지 않으면 누구와 살겠는가. 성(性)을 이해하는 것은 기본적으로 한 사람을 이해하는 것이고 한 세상을 사랑하는 것이다. 어찌 그리 쉽게 성(性)을 그리고 사람을 이해했다고 믿으려 하는가. 충분히 아프고, 충분히 어렵고, 충분히 고민해 보아도 부족할 일을.

상처입기 두려워 사람을 향한 노력과 정성을 포기한다면, 성(性)이 두려워 사람을 향한 노력과 정성을 포기한다면, 결국 남는 것은 의미 없는 일상의 되풀이 일 뿐이라는 것을 학생들과의 면담 안에서 발견하게 되었다. 학생들은 자주 그 슬한 상처와 아픔을 넘어서라도 다가가야 할 만큼 성(性)이 가치가 있느냐고 물어본다. 나는 그때 마다 이렇게 대답한다. 그런 것은 끝까지 가보고 물어보아도 늦지 않다. 어찌면 끝까지 가기도 전에 그 해답을 얻을 것이라고 나는 믿는다. 성(性)은 결코 두려운 것이 아니다. 육체적인 몸을 가진 우리 인간이 하느님께서 처음 이루신 것을 회복하기 위해서 타인을 욕망이나 쾌락 등으로 이용하는 것이 아니라, 타인의 인격을 존중하고 가장 인간다운 것을 찾아야 비로소 성(性)이 두려움이나 상처가 아니라 아름다움으로 우리와 함께 살아갈 것이다. 모든 사람들이 성을 아름답게 살아가는 그날까지.....

무엇이나 다 정한 때가 있다(코헬렛3,1).

- 새로운 변화의 시기!

변수운 수녀

전 한국틴스타 대표 / 착한목자수녀회

어제는 함박눈이 한바탕 내리더니 오늘은 칼바람이 부는 듯하나 봄 햇살 사이로 파스함이 전해 집니다. 이런 꽃샘추위도 며칠이 지나면 완연한 봄기운을 통해 만물을 새롭게 꽃단장시키겠지요. 이처럼 자연의 순리 안에서 생명을 키우고 사랑을 이루는 하느님의 섭리를 읽게 됩니다.

틴스타가 한국에서 공식적으로 활동을 시작한 지 이제 13년째로 접어들니다. 2013년 제가 책임을 맡아 올해의 봄소식을 전하기까지 지나간 시간들이 떠 오릅니다.

본 소식지를 통해서도 몇 차례 나뉘드렸던 것처럼 2013년에 한국틴스타 설립 10주년을 지낸 후 10~20년 후를 바라본 틴스타의 새로운 도약을 위해 2014년엔 조직진단과 컨설팅을 시도했고 시대적 요청과 효과적인 사목적 적용을 위해서는 운영주체의 이양이 적절하다는 판단을 내렸습니다.

또한 틴스타의 첫 자리매김에 큰 은인이시고 고문으로서 틴스타를 돕고 계신 안경렬 몬시뇰께서도 10주년의 축하 글을 통해 틴스타의 발전 방향을 다음과 같이 내다보셨습니다. '서울대교구 틴스타는 전국 틴스타의 만형으로 한국틴스타를 대표하면서 전국 틴스타의 조율, 교육내용 연구와 보급, 교사양성, 대회소집, 경제적지원등에 힘을 보태야 한다. 지도사제와 대표는 실질적 추진위원회를 만들고 봉사자와 전문적 협조자등 실력 있는 사무실 운영체제를 확립해야한다'(소식지 35호)며 교회의 지지를 독려하셨습니다.

2015년 한 해 동안 저희의 이양 요청을 속고 하고 검토한 서울대교구의 추기경님과 주교님들께서는 생명위원회가 한국틴스타를 키워 낼 적절한 부서라고 결정했고 2016년 2월 대표신부님과 담당신부님을 배정해 주셨습니다.

무엇이나 다 정한 때가 있습니다(코헬렛3,1). 시작할 때가 있으면 마칠 때가 있고, 세울 때가 있으면 부술 때가 있고, 만날 때가 있으면 떠날 때가 있고..... 남지도 모자라지도 않는 바로 그때, 서로에게 가장 좋은 시기, 그것이 곧 하느님의 때가 아닐까요? 저는 그 동안 짧으나마 정성 들여 다독이고 키워 온 한국틴스타를 서울대교구로 시집(!?)보내며 모쪼록 자리매김이 잘 되길 바라는 마음입니다. 하느님의 은총 안에서 그분이 바라시는 모습으로 틴스타가 뿌리 내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저는 오늘이 있기까지 많은 분들께 은혜를 입었습니다. 초창기에 초석을 놓아주셨던 몬시뇰과 초대대표 수녀님, 틴스타의 현장을 통해 생명과 사랑의 가치를 전한 수많은 교사와 지역대표들, 이를 위해 영적 물적 자원을 기꺼이 나눠주신 후원자들과 사목자들 그리고 물론 틴스타 사무국에서 열심히 함께 일해 온 직원들, 모두 다 참으로 고마운 분들입니다.

더불어 틴스타를 통한 생명문화가 더욱 확산되도록 초기의 예언자적 역할을 수행한 후 적절한 시기에 기꺼이 운영주체를 이양할 결단을 내린 수녀회에도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성교육? 뻔하지, 뭐!

강은주 올리안나
124차 워크숍 수료

학업성적과 무관하기에 부담이 없고 10대 소녀들의 은밀한 관심사이기에 기대감이 높았던 학창시절 성교육 수업이 떠오릅니다. 선생님 손에 들려있는 비디오테이프 하나가 그 날의 성교육입니다. 아니, 일 년에 한번 있는 교육이니 그 해의 성교육이라고 해야겠습니다.

부푼 기대감으로 영상을 뚫어져라 보고 있자면 배란일, 가임기, 정자와 난자가 만나 수정되는 과정, 태아의 성장과정 등 지난해에도 본 것 같은 내용이 흘러나옵니다. 그 어느 때보다 초롱초롱 빛이 나던 아이들의 눈꺼풀은 이내 무거워지기 일쑤였습니다. 제 기억 속에 성교육이란 이렇듯 그저 부족했던 잠을 채우는 고리타분한 시간입니다.

그로부터 15년이 지난 뒤 틱스타를 알게 되어 워크숍 신청까지 이르렀지만, 마음 한 구석은 사실 심드렁했습니다. 그저 남성과 여성이 만나 새로운 생명이 탄생하게 되는 과정이라든지, 여러 가지 생식력에 관한 정보들이 성교육이라 생각했고 그런 것이라면 이미 어느 정도 알고 있다는 자신감이 있었습니다. 그렇기에 워크숍을 다녀온 사람들이 아무리 좋은 교육이라고 이야기를 해도 '성교육이 특별해봤자 얼마나 특별하겠어.' 하는 마음이 자리 잡고 있었습니다.

반신반의했던 그 마음은 첫째 날 첫 시간 완전히 바뀌어 버렸습니다. 틱스타에서 가르치는 성은 한 사람 한 사람의 성이 얼마나 축복받아야 하는 고귀한 것인지, 그로 인해 남성이든 여성이든 우리 각자가 얼마나 존중받고 사랑받아야 하는 사람인지를 먼저 일깨워주었습니다. 그 어떤 성에 관한 정보보다 나와 내가 만나는 이가 이처럼 모두 소중한 존재라는 것이 가장 크게 마음에 와 닿았습니다. 도덕과 윤리를 통해 머리로 알고 있던 생명의 존엄성을 틱스타 워크숍을 통해 가슴으로 느낄 수 있었습니다.



틴스타를 접하지 못한 사람들에게 이러한 이야기를 한다면 그들은 과연 얼마나 공감 할 수 있을까요? 요즘 학교에서 가르치는 성교육은 많이 유익하고 다양해졌다고 하는데, 그 중 아이들이 가장 관심 있어 하는 부분은 피임교육입니다. 무분별한 성관계로 인해 낙태율이 높아지고, 버려지는 아이들이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나고 있는 현실에서 꼭 필요한 교육이라 할 수도 있겠습니다. 실제로 지금은 언제 어디서나 쉽게 콘돔을 구매 할 수 있고, TV속에서는 피임약이 ‘러블리’ 하게 광고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런 사회에 무방비 상태로 놓인 아이들에게 피임방법을 가르친다는 것은 ‘안심’하고 성관계를 가질 수 있도록 하는 교육인 것 같아 씁쓸해집니다.

뉴스나 인터넷 기사를 보면 성폭력, 성매매, 낙태 등 성문제로 인한 사건들이 이젠 특별하지 않을 만큼 비일비재합니다. 그렇기에 틴스타 교육이 진정으로 필요한 시대라고 하겠습니다. 우리 모두 귀한 성을 가지고 있는 것만으로도 얼마나 가치 있는 사람인지 깨닫는다면 나도 소중하고 내가 만나는 사람도 소중해집니다. 성교육의 출발점은 이것에서 시작되어야 하지 않을까요? 일상을 바쁘게 살아가는 우리에게 4일을 투자하기란 사실 쉽지 않습니다. 저도 그렇기에 주변의 권유에도 차일피일 미루어 왔습니다. 하지만 틴스타 워크숍 이후 하루라도 더 빨리 이 교육을 접하지 못했다는 것이 아쉬움으로 남습니다. 그리고 이제라도 접하게 되어 다행이라는 안도감이 생깁니다. 진정한 성에 대해 생각하게 하고, 나도 이해하지 못했던 내 자신을 이해받을 수 있었던 이 값진 시간을 다른 사람들도 경험해보길 바랍니다.

☆ 한국틴스타와 착한목자수녀회가 함께하는 화해 피정 안내

- 주관 및 주최 : 한국틴스타 / 착한목자수녀회
- 대상 : 낙태 경험이 있는 여성 (선착순 8명, 당일 접수 안 됨)
- 일정 : 월 1회 개최 (2박 3일) 첫째 날 오후 3시~ 마지막 날 오후 1시30분
- 날짜 : 4월 8일(금)~ 10일(일), 5월 27일(금)~29일(일),
6월 17일(화) ~19일(목)
- 장소 : 경기도 가평 성 빈센트 환경마을
- 참가비 : 한국틴스타에서 전액 후원
- 문의 및 접수 : 010-7440-8687



본부 및 지역소식

본부소식

* 한국틴스타가 (재)착한목자수녀회에서 2016년 2월 서울대교구 생명위원회로 이관되었습니다.

한국틴스타 대표로는 **지영현 시몬** 신부님 (생명위원회 사무국장), 담당신부는 **성지운 이냐시오** 신부님 (생명위원회 사무차장)입니다.

* 직원 동정

그동안 사무국과 현장업무를 담당했던 **박미소 요안나** 직원이 퇴직했습니다. 그동안의 수고에 감사드립니다.

대구지부

* 매월 2, 4째주 금요일에 스터디가 꾸준히 이루어지고 있다.

1월에 열린 워크숍 후 심화반이 월요일반, 토요일반 2개 반으로 구성되어, 10명의 선생님이 수강하였다.

본당 주일학교 교리교사와 남성 선생님들을 위한 심화 반을 재편성 할 예정이다.

인천지부

* 인천틴스타 교사들이 매월 모임에 생명관련도서 나눔을 하고 있으며, 틴스타 프로그램 중 중학생단원에 대한 교안교육진행을 하고 있다.

새 교재 출판(9판)에 따른 안내

◆ 워크숍 교재(개정출판) 구성

1권



2권



◆ 교재 안내 1

[1권 구성]

- 틴스타 교사양성프로그램(워크숍)
- 틴스타 부모모임(1,2,3 단계)
- 틴스타 교육과정(중, 고등, 성인)

◆ 교재 안내 2 [2권 구성]

- 워크숍에서 사용할 유인물(별지자료를 옮겨옴)
- 프로그램을 위한 교사지침과 유인물
- 고등학생 프로그램을 위한 교사지침 & 유인물
- 중학생 & 유인물
- 중 · 고등 프로그램 & 유인물(공통)

- 성인을 위한 프로그램 & 유인물
- 교사를 위한 도움자료
- 틴스타 참고문헌 및 자료
- 청소년 상담 및 쉼터 안내

- 삭제된 것 -

- 몸의 신학 - 로버트 브루스 신부
(틴스타 홈페이지 자료실 열람 가능)

◆ 교재 안내 3

보완삽입자료 - 2권 도움자료

✓ 프로그램을 위한 교사지침과 유인물 - 현장 수업 참관록

✓ 워크숍에서 사용할 유인물 - 연습용 자료들

✓ 성인을 위한 프로그램 교사지침 - 총체적인 성 도움자료/
배미애 수녀

✓ 교사를 위한 도움자료 - 종교적 보충자료
몸의 신학 / 박정우 신부

◆ 교재 안내 4

• 용어관련

- 자연출산조절
- 후속상담



- 자연가족계획
- 개별면담

<틴스타적 표현과 외래어 표기의 비교>

- 성선자극유도호르몬(G호르몬)
= 성선자극호르몬방출호르몬(GnRH)
- 황체화 호르몬 유도인자
= 황체화호르몬방출호르몬(LHRH)

2016년 상반기 현장수업을 위한 안내

◆ 중 · 고등학생을 위한 프로그램	
1. 현장 보고서 (도움자료 27쪽)	첫 수업이 끝난 뒤 바로 사무국으로 발송
2. 시작 전 설문 (도움자료 110~111쪽)	수업종료 후 사무국으로 발송
3. 개별면담일지 (도움자료 여-29쪽, 남-31쪽)	
4. 종료 설문 (도움자료 125~126쪽)	
5. 현장 종료보고서 (한국틴스타 홈페이지)	
◆ 총체적인 성 프로그램 (대학생 및 성인)	
1. 현장 보고서 (교재-도움자료 27쪽)	첫 수업이 끝난 뒤 바로 사무국으로 발송
2. 개별면담일지 (도움자료 여-29쪽, 남-31쪽)	수업종료 후 사무국으로 발송
3. 총체적인 성 - 종료 평가 (도움자료 147~148쪽)	
4. 현장 종료보고서 (한국틴스타 홈페이지)	

- ★ 프로그램이 종료 된 후 종료보고서를 표지로 하여 시작 전 설문지, 개별면담일지, 종료설문지를 각 반 별로 묶어 보내주시면 됩니다.
 - ① 종료보고서는 각 반별로 작성함을 원칙으로 합니다.
(ex : A반 B반의 경우 A반 한 장, B반 한 장, 각 반별로 작성)
 - ② 설문지와 개별면담일지도 반별로 구분하여 해당 반의 종료보고서에 묶어주시면 됩니다.
 - ③ 종료보고서 하단에 꼭 자필서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 ★ 위 양식들은 한국틴스타 홈페이지(<http://www.teenstar.or.kr/>)에 접속하여 로그인 하신 후 [교사 자료실 → 자료실]에서 다운로드 하실 수 있습니다.

2016년 상반기 한국틴스타 지도자과정 워크숍 현황



124차 서울워크숍



125차 광주워크숍



126차 대구워크숍



127차 제주워크숍

중요
현장

분류	지역	현 장 명	담 당 교 사
학교	경북	산자연중학교(중)	노언희 선생
		산자연중학교(중)	김성범 선생
	광주	살레시오고등학교(고) A반, B반, C반	안 용 신부
		살레시오고등학교(고) D반, E반, F반	
		살레시오고등학교(고) G반, H반, I반	
	대구	대구가톨릭대학교 신학대학(총)	박광훈 신부
		경산여자중학교(중)	전수영 선생
		경산여자중학교(중)	홍경희 선생
		대구가톨릭대학교(총) A반, B반	김정숙 선생
		대구가톨릭대학교(총) A반, B반	백민주 선생
		효성중학교 동아리(중)	김외택 선생
		효성중학교 동아리(중)	허선아 선생
		효성중학교 동아리(중)	전수영 선생
	효성중학교 동아리(중)	노진화 선생	
	마산	성지여자중학교(중)	조경원 수녀
		성지여자중학교(중)	윤선옥 수녀
		성지여자중학교(중)	이인득 수녀
		성지여자중학교(중)	김영은 선생
		성지여자중학교(중)	이정미 수녀
		성지여자중학교(중) A반, B반	이연복 선생
		성지여자중학교(중) A반, B반, C반	김미량 선생
		성지여자고등학교(고)	김미진 선생
		성지여자고등학교(고)	정은선 선생
		성지여자고등학교(고)	이경숙 선생
		성지여자고등학교(고)	강은옥 선생
		성지여자고등학교(고)	임채란 선생
		성지여자고등학교(고) A반, B반	장은영 선생
		성지여자고등학교(고) A반, B반, C반	김미현 선생
	서울	서울대교구 대신학교(총)	하정용 신부, 고종향 신부
		무학중학교(중) A반, B반	정해리 선생
무학중학교(중)		김길환 선생	
무학중학교(중) A반, B반		이필숙 선생	
상명사대부속여자고등학교(고)		정해리 선생	
상명사대부속여자고등학교(고)		박경숙 선생	
상명사대부속여자고등학교(고)		박성은 선생	
상명사대부속여자고등학교(고)		한명례 선생	
상명사대부속여자고등학교(고)		장숙희 선생	
상명사대부속여자고등학교(고)	박진경 선생		

종교
현장

분류	지역	현 장 명	담 당 교 사
학교	인천	인천가톨릭대학교 신학대학(총)	김복천 수사
	충남	천안월봉고등학교(고)	강정혜 선생
종교 단체	대구	대구대교구 두산성당 자모회(총)	최경옥 선생
		대구대교구 성유대철 성당(고)	박주원 선생
	서울	마천동성당 어린이집 자모회(총)	김혜정 선생
		서울대교구 망우동 성당(중)	임복규 선생
		서울대교구 망우동 성당(중)	안지훈 학사
	인천	인천교구 일신동 성당(총)	이정림 선생
		인천교구 일신동 성당(총)	이현옥 선생
		인천교구 일신동 성당(총)	강명선 선생
		인천교구 검단동 성당(중)	이아란 선생
	충북	인천교구 검단동 성당(중)	강성실 선생
충북		원주교구 청전동 성당(고)	홍현진 선생
기관	제주	제주 생명의 샘(총)	고경심 선생
기타	서울	용산지역 어머니모임(총)	김혜정 선생

진행
현장

분류	지역	현 장 명	담 당 교 사	시 작 일
학교	서울	무학중학교(중)	김길환 선생	2016. 3.16
		무학중학교(중)	김영희 선생	2016. 3.16
		무학중학교(중)	양준희 선생	2016. 3.16
		무학중학교(중) A반, B반	이필숙 선생	2016. 3.22
		서울대교구 대신학교(총)	하정용 신부	2016. 4. 3
대전	대전가톨릭 신학대학교(총)	2016. 4. 4		
종교 단체	대구	예수성심시녀회 지원자모임(총)	전수영 선생	2016. 1.11
	울산	부산교구 병영 성당(고)	하영애 선생	2016. 1.23
	인천	인천교구 검단동 성당(중)	이아란 선생	2016. 2.27
인천교구 검단동 성당(중)		최종남 선생	2016. 2.27	
기관	인천	새봄지역아동센터(중)	황윤정 선생	2016. 3.11
		영산지역아동센터(중)	김기환 선생	2016. 3.11
		하늘씨앗지역아동센터 교사회(총)	조정옥 선생	2016. 3. 2
		하늘씨앗지역아동센터 교사회(중)	김기환 선생	2016. 3.12
		하늘씨앗지역아동센터 교사회(중)	황윤정 선생	2016. 3.12
기타	대구	북현동 홈스쿨링(고)	김영건 선생	2016. 1.12
	서울	삼성공장학재단(총)	김효정 선생	2015.11.11
	춘천	춘천교구 젊은이모임(총)	김혜선 수녀	2016. 2.19

* 2016년 상반기 현장에 대해서는 현장과의 조율과정으로 인해 6월 소식지에 더 자세히 공지해드리겠습니다.



알/림/방

☆ 2016년 한국틴스타 지도자 과정 워크숍 – 종료 현황

제124차 서울

- 주관 : 한국틴스타 본부
- 주최 : 한국틴스타 본부
- 기간 : 1월 12일(화)~15일(금)
- 장소 : 가톨릭회관

제125차 광주

- 주관 : 한국틴스타 본부
- 주최 : 광주대교구 사목국 가정사목부
- 기간 : 1월 9일(토)~10일(일), 16일(토)~17일(토)
- 장소 : 광주가톨릭대학교 평생교육원

제126차 대구

- 주관 : 한국틴스타 본부
- 주최 : 한국틴스타 대구지부
- 기간 : 1월 12일(화)~15일(금)
- 장소 : 대구대교구 성토마스 성당 강당

제127차 제주

- 주관 : 한국틴스타 본부
- 주최 : 한국틴스타 제주지부
- 기간 : 1월 21일(목)~24일(일)
- 장소 : 신성여자고등학교

☆ 후원회원과 틴스타 교사를 위한 미사

여러분의 소중한 후원에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한국틴스타는 후원하신분과 틴스타 교사를 위해 **매월 첫째 주 월요일 오전11시 파밀리아 채플**(명동 교구청 신관 앞 건물)에서 **생명을 위한 율레미사**(서울대교구 생명위원회 주관)에서 함께 봉헌합니다.

희망하시는 분들께서는 율레미사에 함께 해주시기 바랍니다.

☆ 한국틴스타 후원 안내

한국틴스타는 여러분의 도움으로 일궈나갑니다. 후원을 희망하시는 분은 홈페이지에 있는 CMS 신청서를 이용해 주시거나 본부로 연락주시면 됩니다.

- 후원통장 : 우리은행(예금주: 한국틴스타) : 1005-100-998647
- 국민은행(예금주: 한국틴스타) : 875401-01-517401
- 신한은행(예금주: 한국틴스타) : 100-021-644868
- 외환은행(예금주: 한국틴스타) : 611-016668-535

발행일 : 2016년 3월 1일 (통권 제45호 봄호-계간 발행)

발행처 : 서울대교구 생명위원회 – 한국틴스타

주 소 : 서울 중구 명동길 80번지 가톨릭회관 603호

전 화 : 02)755-2629

홈페이지 : www.teenstar.or.kr

E-mail : kteenstar@hanmail.net

팩 스 : 02)727-2243